

“광주시, 제2순환로 민자구간 혈세낭비 최소화 방안 찾아야”

정부법무공단 “관리·운영권 박탈 사유 존재 안해...공익처분 근거 부족” “2028년까지 5.67km에 1조원 혈세 투입...운영권 회수 방안 고민해야”

광주시의 졸속협상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에 대해 혈세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한 ‘해당 구간 운영권 회수안’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사실상 공익처분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박탈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은 광주시가 의뢰한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익 처분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단은 “공익 처분은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법률상 엄격한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이 사안에는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정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운영권 박탈 관련 소송에서 광주시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미다.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에서 광주시의 졸속 협상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으로 운영권 회수를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지난해 광주시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협상이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 재정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신규 투자금 등이 과다 책정됐고,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광주시에 5000억원 절감안을 제시한 회계 전문가는 브로커에 의해 협상단에서 배제됐고, 해당 브로커는 지난 6월 광주지법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면서 “맥쿼리측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들어가는 세금 4900억원, 주민 통행로 4717억원 등 1조원 가까운 액수가 5.67km밖에 안 되는 순환도로 1구간에 뿌려진다.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당시 “수익률이 과다하고, 재정 지원금은 부풀려지고, 시에서 법인세까지 부담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법무공단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익 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재구조화 협상과 관련한 사람들의 법률적 처분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법무공단의 판단으로 공익 처



7일 오후 제철작업이 한창인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소태요금소를 차량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분이라는 1차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광주시는 일단 혈세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사업자측과 재구조화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태스크 포스를 꾸려 대응 방안을 자문

할 계획”이라며 “별개로 사업자와 수익률 변경 등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 연계 ‘글로벌 외자유치’ 추진

해상 풍력·에너지지산업 등 외국인 투자유치 3000억 목표

전남도가 올해 블루 이코노미의 해상풍력·에너지지산업·바이오·농수산·관광개발 분야 등 글로벌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남도는 정밀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리 스텔라스토머스 등 5개 기업에서 1315억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실현했으며, 이를 통해 7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억 5500만 달러로 2019년 5300만 달러 대비 3배 수준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 지난해 (주)한양과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건설을 위한 1조30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

10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일자리 250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해외자본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목표를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전남형 상생일자리 해상풍력 기자재클러스터와 K-면역 바이오혁신밸리, 농업융복합산업, 관광개발 등 청정전남 블루 이코노미 연관 기업과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한국의 FTA 플랫폼을 활용하려는 중국·일본 등 소재부품·식품 가공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도 지속 가능한 맞춤형 온라인 투자설명회 등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외부기업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도내 외부기업의 고충사항 등을 신속 처

리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첨단산업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개정, 글로벌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했다.

배택후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올해도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상풍력, 에너지밸리, 수소·LNG 등 에너지 관련 기업과 섬·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등 일자리창출형 글로벌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국내외의 264개 기업과 4조979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8340명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호 상생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500여명 채용

9월 완성차 생산 돌입

전국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직원 500명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오는 9월 완성차 생산에 들어간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GGM은 현재 임원 6명, 경력직 137명을 채용하고 신입사원 186명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께 170여명을 추가로 채용해 모두 500여명 규모로 가동할 예정이다.

5차례 경력직 채용에서는 차수별로 9.5대 1에서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76%는 광주·전남 출신이었다. 전문 기관이 대행하는 채용 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 역량검사가 이뤄진다. 지원자들은 원하는 장소에서 PC를 이용해 응시하면 된다.

AI 영상면접에서는 지원자가 자기소개를 하면 AI가 얼굴의 68개 근육 지점을 확인하고 음성, 자주 사용하는 단어 등으로 감정을 분석한다. 이후 2단계 인·적성 검사, 3단계 게임을 통해 상황 판단력 등을 파악한다.

결과는 점수로 매겨지지만,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서류 전형의 기본 자료로 제공돼 상황 등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GGM은 인력 채용과 함께 4월 시운전을 거쳐 9월 생산 공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공장은 경영 스포츠유틸리티차 7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다.

인력 채용이 마무리되면 총 1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올 751억 투입 친환경차 5710대 보급

전남도가 올해 국비 504억원 등 751억원 투입해 5710대의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수송 분야에 있어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국비는 지난해 197억 원보다 2.6배 규모로, 도비 57억원과 시군비 19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751억원이다. 이를 통

해 친환경자동차 전기승용차 3500대, 전기화물차 1100대, 전기이륜차 800대, 전기버스 10대, 수소자동차 300대 등 총 57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각 차량별 지원금으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1420만원부터 1660만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2320만원부터 2800만원 ▲수소자동차는 대당 3450만원에서 375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남도는 전기·수소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을 통해 수송 분야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 온실가스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은 물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2050 탄소중립’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전남도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매도 인공지능으로” 광주시, 지역업체와 기술개발 협약

광주시가 지역 기업과 손잡고 결혼 중매, 본인 인증 등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업화에 나선다.

광주시는 7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포텍스, 고스트패스와 지역 기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했다. 광주시의 이번 AI 관련 업무협약은 각각 64~65번째로, 외지 기업 투자 유치가 아닌 광주에서 성장한 업체와의 협약은 이번이 처

음이다. 인포텍스는 결혼 중매 앱 서비스 ‘여보야’를 제공하는 업체로 130만여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분석 기술로 결혼 상대를 추천하는 기술을 사업화한다.

광주시와 함께 AI 기반 미혼남녀 연계 플랫폼을 개발해 만남 추천에서 결혼, 아이 돌봄에까지 이르는 생애 주기별 출산 정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스트패스는 AI 안전인식 기술로 탈중앙화 본인 인증(Decentralized Identity) 주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다.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한 안전인식 본인 인증 기술로 특허 인증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
로
충만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27	
	한국어교육학과	4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13	
사범	유아교육과	5	
예능	음악학부	18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사범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인문	신 학 과	13	1		
	한국어교육학과	4			4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15	1		
사범	유아교육과	2		1	
예능	음악학부	8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21. 1. 12(화) ~ 25(월)

전명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21. 1. 7(목) ~ 11(월) · 전형 일 : 2021. 1. 18(월)

www.kwangshin.ac.kr

원서접수는
정시모집 2021. 1. 7(목) ~ 11(월)
편입모집 2021. 1. 12(화) ~ 25(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